

강진군, 호수공원 주변 방역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대비해 주변 정화작업 체류형 관광으로 작년 한해 100억 수익 거둬

강진군과 강진군체육회가 지난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대비해 향후 생활체육 걷기, 공연시설 및 어린이 놀이 가족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직원 50명이 참여해 호수공원 주변 환경정화와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호수공원은 군이 지난 2009년에 강진읍 송전리 일대 약 10만㎡ 부지에 산책로, 수변데크 등을 조성해 14만 4천㎡의 저수용량을 갖춘 재해예방을 겸한 도심 호수공원으로 건설한 곳이다. 최근에는 호수공원 주변에 495㎡의 장미공원을 개장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은 매년 약 60여 개 스포츠 대

회를 개최와 더불어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 작년 한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올해도 탁구 상비군 선발전을 비롯한 각종 전지훈련 유치로 연인원 4만 여 명이 참여해 약 31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연기했으나 향후 대회 개최를 대비해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축구전용경기장 천연잔디 교체, 수영장 타일 및 제1실내체육관 지붕보수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체육시설 방역을 추진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정화 및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요인의 사전 차

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정지역 강진을 유지하는 한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마련에도 총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의회, 명사탐방로 사전답사

2021년까지 완공 계획

영암군의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월출산 명사탐방로 주요 노선을 답사하였다.

월출산 명사탐방로는 명사(名士)들이 월출산을 오른 길이라는 뜻으로 기찬랜드에서 마애래좌상, 용암사지, 구정봉, 천황봉을 잇는 신규탐방노선이다. 명사탐방로가 개설 될 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관광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파급효과를 파악하고자 본 탐방로 답방에 나섰다.

현장에서 조정기 의장은 "우리 고장의 문화관광 사업을 위

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월출산의 빼어난 자연을 이용하여 우리 군 관광 개발에 힘쓴다면 자연스럽게 관광객도 모여들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의회 또한 컨텐츠 발굴과 홍보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기 의장은 지난 3월 본 월출산 관광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공원에 위탁·지원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영암군과 월출산국립공원은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1년까지 탐방로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낙도, 드론 택배 시행



도서 지역으로 형성된 완도군의 낙도 주민들이 2022년부터 드론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밀착형 드론 배달점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배달 운행 시범사업'을 추진해왔고, 2020년 공모사업에 완도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 밀착형 드론 배달점 설치사업은 도서 및 산악 등 우편이나 택배 수령이 어려운 물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배달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드론 배달점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드론이 비행하여 위치를 찾고 원하는 지점에 배달할 수 있도록 완도군 관내 30여 개소에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게 된다.

드론 배달점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7500만원)로 진행된다.

완도군은 본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말까지 기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이후 2021년에는 시범 운영을 거치고, 2022년에는 장비 도입과 본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에 생필품·구급약품·택배 등을 신속하게 배달함으로써 물류 사각지대에 있는 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선정...690억 투입

2025년까지 제방·호안시설 정비, 진도읍 해창지구·염대지구 추진

진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진도읍 해창지구와 염대지구가 지정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지 지정으로 국비 345억원 등 총 690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위험요소

를 사전에 제거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군은 내년까지 실시계획용역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남천3교에서 해창리(10.5km) 구간과 칠전저수지에 석교천(8.5km) 구간에서 제방·호안시설을 정비할 예정이

다.

또 교량을 재 건설하는 등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하천 범람과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 등도 예방할 계획이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사업 설계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신안서 도요물폐쇄 발자취 기록하다

가락지부착 기록 2010~2018 보고서 발간

신안군은 국내 최대 갯벌습지보호지역이자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 서식지인 압해도 갯벌에 도요물폐쇄 가락지 부착기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2018년까지 압해도에서 관찰된 도요물폐쇄 기록을 정리한 독일인 조류연구자 안드레아스 김에 의해 작성되었다.

안드레아스 김은 올해 60세로 독일에서 정보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25년 근무하였으며 2004년 한국 이주 후 신안군 압해도 등에서 도요물폐쇄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도요물폐쇄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유색 가락지를 다리에 부착, 각 국가와 지역별로 가락지 색과 조합이 정해져 있다. 가령 호주 북서부는 노란색, 한국은 주황색과 흰색 조합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들 가락지를 관찰하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

황해 갯벌의 관문인 압해도에는 가락지를 부착한 많은 도요물폐쇄들이 관찰되는데 안드레아스 김의 이번 보고서에는 2010~2018년의 9년간 호주 등 8개국 19개 지역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큰뒷부리도요 등 12종의 1,913회 가락지 부착기록을 담고 있다.

신안=정승호 기자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서치 아웃
2관	1917
3관	애프터 웨딩 인 뉴욕, 1917, 서치 아웃
4관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 라라걸
5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그녀의 비밀정원
6관	라라랜드
7관	이누야시키, 인비저블맨
8관	라라랜드, 비밀정보원
9관	어벤져스, 체이싱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호텔 레이크
2관	기생충 : 흑백판
3관	어벤져스 : 엔드 게임,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
5관	킹덤
6관	어벤져스 : 엔드 게임,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